

관측 및 예보 분과 [P-270]

## 충북지역 폭염영향예보 활용과 홍보 캠페인

김지영, 구지영, 주경돈, 서다솔, 이명희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며, 농업·산업 전반에 걸쳐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기상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폭염영향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에서는 충북지역 폭염 영향예보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며 다양한 실무 활동 진행하였다.

캠페인은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노인복지관 등 폭염 취약 계층과 접점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해를 피하면 행복해집니다(해피해피)’ 캠페인’을 통해 주거 취약지역, 무더위 쉼터, 노인복지관, 야외 관광지 등에 생수과 폭염 예방 물품(부채형 리플릿, 쿨타올)을 나누어주었으며, 폭염 관련 강의를 통해 폭염과 영향예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폭염영향예보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활용해 폭염 영향예보 발표에 따른 유의사항을 송출하여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대상으로 폭염 영향예보 통보문 번역본(베트남어, 몽골어)을 제공하여 기상정보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참여형 프로그램 형태로 폭염 안부전화 캠페인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폭염 영향예보를 활용하여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벤트 참여자 상당수가 “폭염 영향예보 알림을 받고 부모님을 비롯하여 폭염 취약 계층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낮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섭취하는 등의 실제 행동을 하게 했다”고 응답하여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폭염 영향예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에는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폭염 영향예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Keywords:** 폭염영향예보, 캠페인, 폭염, 홍보, 활동